

문화광장



홍정호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장

탐라문화제

은 천년 탐라해양왕국으로 부터 전승되어야 할 항해 기술, 지식과 경험, 정치, 외교, 의전 등 그 유구한 역사로부터 단절의 시작점이다.

문화란 특정지역의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을 특징짓는 공유된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및 유품을 말한다. 언어, 종교, 사회적 규범, 전통, 예술, 음악, 문학 및 의식주를 기반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며 역사적 사건, 지리적 요인 및 다른 문화와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1962년, 한국에총체적특별자치도 연합회가 탐라의 언어, 문화 그리고 예술의 형태를 복원하고 계승하고자 시작한 축제가 지금의 탐라문화제이다. 그러면 탐라문화는 어디까지 복원되고 계승하며 발전하고

있는가? 설문대 할망의 명주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의 것인가? 누에마루와 명주는 탐라의 중요한 유산이다. 더불어 갓(총모자, 양태), 망건, 탕건은 탐라의 무형문화재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런 배경을 비추어 보면 고대 탐라의복이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빛나는 패션을 선도했을 가능성은 없었는가? 제주도지사가 제주 전통 탕건과 갓을 쓰고 내외빈을 맞이하는 모습이 낯설 것이다. 전통의 계승 발전은 문자가 아니라 실체화, 일상화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려는 의지의 지속성이다.

탐라문화제는 가시적인 행사가 아니다. 관객을 위한 가변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 탐라문화제의 본질은 박물관에서 꺼내어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로 키워내야 하는 탐라 전통의 지킴과 계승 발전이 담겨 있는 뜨거운 축제의 옹호로써야 한다. 탐라문화제의 정체성과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제주예총 회장이 바뀌든, 제주도지사가 바뀌든 방향성과 지속성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언어가 소멸되지 않는 원칙 중 하나가 그 언어로 된 문학작품의 탄생이다. 탐라 언어, 음계와 리듬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정책과 지원처럼 탐라문화 기반 예술활동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탐라문화제는 천년 탐라문화의 중흥을 위한 정책, 연구자, 학계, 각 예술협회, 청소년을 포함한 제주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총체적 과정이다.

사설

지역소멸 위험성 갈수록 커지는 제주

제주도내 상당수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소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에도 순유출까지 늘어나면서 도내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멸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단 5곳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서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제주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0으로 나타났다. 1년 전(0.645)보다 소멸위험지수가 낮아져 소멸 위험성이 더 커진 것이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올해 소멸위험지수가 1을 넘는 지역은 아라동(1.111), 외도동(1.070), 오라동

(1.038) 등 5개동 뿐이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1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도내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만 해도 2.22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았다. 그게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더니 2007년(1.39)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1 이하인 0.95로 낮아져 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 후 2020년 0.78, 2021년 0.74, 2022년 0.69, 2023년 0.65에 이어 올해는 더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은 물론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가 나쁘다. 날로 쇠락하는 지역이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지역이 제주도는 무엇보다 '실망한 농촌'을 만드는 데 도정의 역할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한부모 가정의 밝은 미래 위한 작은 발걸음



고보익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정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찰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 모두가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필요한 지원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찰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부모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서관도 '2035 탄소중립 실현' 동참

"잠자는 에코백 기증해 달라" '문화예술 위케이션' 활발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2035 제주도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에코백 기증과 대어 캠페인을 전개.

이번 캠페인에서는 플라스틱 회원증 대신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회원증을 발급, 사용에 달라고 안내하는 한편 집에 잠들어 있는 에코백을 기증해주면 제주시기적 의도서관, 조천읍도서관을 포함한 우당도서관에 소속된 공공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용 대어 가방으로 활용하겠다고 관심을 당부.

캠페인과 더불어 환경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환경 북 큐레이션, 자료실 내 환경 도서 특별 코너도 운영 계획인 우당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손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전진희기자

○...제주에서 일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위케이션 in 제주(제주 위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급효과에도 관심.

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운영되는 올해 제2차 '제주 위케이션' 프로그램엔 지난 4월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7개 지역의 광역문화재단 직원 20명이 참여.

재단 관계자는 "제주 위케이션의 성공적 경험들이 축적되면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케이션이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종사자 대부분이 각 지역 문화에 쉽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저지 않은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 오은지기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후반기가 중요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부터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오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개편 추진 등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을 법 하다.

오 도정은 2년 전 민선 8기를 열면서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 정부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 등도 드러냈다. 그러나 오 도정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온데간데없고 역대 도정의 단점만을 한데 묶어놓는 듯한 이미지로 비쳤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물론 도의원과 국회의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오 지사는 그동안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트램과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변화, 그린수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도민 투표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면서 하반기 도정 핵심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지사는 전반기 도정운영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상위에서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들을 이끌고 도민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부고

신중훈(농협 제주본부) 어머니 제주부씨 매자(향년 84세)께서 서기 2024년 7월 1일 0시 5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4년 7월 2일(화요일) ▶ 발인일시 : 2024년 7월 3일(수요일) 오전 6시 30분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 송당리 선영

아들 신중훈 며느리 김희진 딸 신경희 사위 현정훈 경은 박지웅 경아 조남경 혜정 송상훈

* 연락처 : 신중훈 010-2273-8607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고희석(1935년 9월 2일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간월동로5길 8-12(아라이동) 상계자는 2024년 4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4년 6월 24일 제주지방법원 2024년단10397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간월동로5길 8-12, 1층(아라이동) 2024년 7월 2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조방자, 고은영, 고성철, 고은경, 고은지, 고용철, 고종철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어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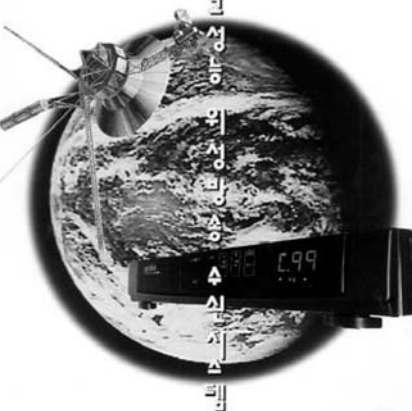
- ◆ 자택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어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어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출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가족묘지 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조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